

광주 늘봄학교 첫날...기대 속 웃음 '가득'

●북구 경양초등학교

1학년 10여명 전통놀이 수업 호응...이정선 교육감 현장 찾아 교육청 "인력 확보 철저"...학부모 "프로그램 다양화됐으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맡아준다니 안심되고 믿음도 갑니다. 다만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규수업 이후 2시간 동안 학생들의 희망사항에 따라 무료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늘봄학교'가 4일부터 전국 2천700여개 초등학교에서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광주에서도 32개교가 시행 첫날을 맞았다.

이날 오후 2시에 광주 북구 경양초등학교 2층 늘봄교실 안. "문지기 문지기 문열어라"는 노랫소리에 맞춰 10여명의 아이들이 형형색색의 보자기를 이용해 제기를 옮기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는 해당 초등학교에서 월·수·금요일마다 운영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전통놀이 수업으로, 첫날부터 아이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기존의 돌봄과 방과후학교가 하나로 합쳐진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시간 전후인 오전 7시와 수업 종료 후인 오후 8시까지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중에서도 초등학교 신입생들은 오후 1시에 끝나는 정규수업 이후 2시간

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은 자율적 선택제로 운영된다.

늘봄교실 운영에 앞서 오후 1시30분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백기상 교육국장 등 교육청 관계자들이 경양초를 찾아 늘봄교실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기존에 운영되던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가 늘봄학교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인력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관점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늘봄교실에서 전통놀이 프로그램을 지켜본 한 학부모도 "학교에서 무료로 2시간씩 아이들을 맡아준다니 더 믿음이 가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된다"면서도 "저학년 아이들은 집중도가 높지 않

아 계속 같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면 금방 싫증을 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마다 한시적 기간제·단기인력 1명씩을 추가로 배치했다"며 "이번 늘봄학교 시행이 돌봄은 물론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프로그램 다양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시범운영을 마친 전남도는 이날 425개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운영에 본격 돌입했다. /장은정 기자



전국적으로 '늘봄학교'가 시작된 4일 오후 광주 북구 경양초등학교에서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전통놀이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장은정 기자

오늘의 날씨

☀ 해돋이 06:57 해질 18:32
🌙 달돋이 03:03 달질 12:24

인천	5/11	서울	4/12	대전	6/9	강릉	3/6	춘천	0/11	도도	7/9
목포	7/9	전주	6/10	광주	6/9	대구	5/8	부산	8/10	제주	10/13
흑산도	6/9	여수	6/8	광주	6/9	대구	5/8	부산	8/10	제주	10/13

광주 비	6/9
목포 비	7/9
여수 비	6/8
나주 비	6/9
완도 비	8/9
구례 비	5/9
강진 비	7/9
해남 비	8/9
장성 비	5/10
보성 비	5/8
순천 비	6/9
영광 비	5/9
진도 비	7/10
흑산도 비	6/9
고흥 비	7/9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40** 🧺 **빨래 20** 🚗 **세차 20** 🏃 **운동 60**
우산 챙기세요 잘 마르지 않아요 다음으로 미루세요 실내운동 즐겨요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1.0-2.5
	면바다(북)	1.5-3.5
	면바다(남)	1.5-3.5
남해 서부	앞바다	1.0-3.0
	면바다(동)	1.5-3.5
	면바다(서)	1.5-3.5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목포	08:57	01:08
	20:59	15:12
여수	04:34	11:34
	16:36	22:37
녹동	05:33	12:31
	17:09	23:42

●전국 날씨

날짜	광주	서울	강릉	대구	제주
3월 6일(수)	☁ (4/13)	☁ (2/0)	☁ (3/5)	☁ (5/10)	☁ (6/11)
7일(목)	☁ (3/10)	☁ (2/8)	☁ (0/6)	☁ (2/11)	☁ (7/10)
8일(금)	☀ (0/8)	☀ (-1/7)	☀ (1/8)	☀ (1/9)	☀ (6/9)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광주·전남 주요대학 신입생 '정원 미달'

전대 24명·조대 35명·동신대 177명 미충원
광주대·호남대는 전년보다 등록률 소폭 상승

광주·전남지역 주요 대학들이 학령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올해에도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4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2024학년 신입생 등록률이 99.5%로 집계됐다. 총

4천385명(광주 용봉캠퍼스 3천581명·여수캠퍼스 804명) 모집에 4천361명이 등록을 마쳤다. 광주 용봉캠퍼스 2명, 여수캠퍼스 22명 등 총 24명의 미충원이 발생했다. 지난해 최종 등록률 99.7%

대비 0.2%p 감소했다. 조선대학교의 최종 신입생 등록률은 99.2%를 달성했다. 정원 내 모집정원인 4천348명 가운데 4천313명이 최종 등록을 마쳤다. 미달 35명이다. 지난해 최종 등록률 99.4% 대비 0.2%p 줄었다.

광주대학교의 최종 신입생 등록률은 95.4%를 기록했다. 정원 내 모집정원 1천304명 가운데 1천244명이 등록해 60

명이 미충원됐지만, 지난해 최종 등록률 86.2% 대비 9.2%p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호남대학교의 최종 신입생 등록률은 92.1%를 기록했다. 2024학년 신입생 1천502명 모집에 1천384명이 등록해 118명이 미달됐다. 지난해 최종 등록률 85.8% 대비 6.3%p 올랐다.

동신대학교의 최종 신입생 등록률은 87.7%를 기록했다. 정원 내 모집 1천440명 가운데 1천263명이 최종 등록을 마쳤다. 동신대는 지난해 최종 등록률 91.3% 대비 3.6%p 줄었다. /김다이 기자

동구, 전국 지자체 정부혁신평가 7년 연속 '우수'

광주 동구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

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역량, 혁신성

과, 국민 체감 등 3개 항목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동구는 ▲소통을 통한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민관 협력을 통한 AI(인공지능) 헬스케어 산업 육성 ▲아픈 아이 건

급 병원 동행 서비스 추진으로 주민 편의 제고 ▲디지털 기반 체계적 민원 이력 관리를 위한 '종합민원 이력 관리시스템' 개발 등 행정 전반에서 이뤄낸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장은정 기자

광주시, 학교·유치원 급식소 위생점검

오는 22일까지 1천500여곳 대상

광주시는 4일 "개학기를 맞아 자치구, 시교육청과 함께 학교 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등 1천500여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는 위생점검 계획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학교와 유치원 집단급식소 236곳, 학교 대상 식재료 공급업체 32곳 등 총 328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냉동·냉장제품 보관 기준 준수 ▲조리시설 등 위생관리 ▲정서제 식품 판매 여부 등이며 위생 상태가 불량한 제품은 수거해 검사한다.

리기구 세척·소독 관리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학교매점,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천174곳에 대한 위생 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냉동·냉장제품 보관 기준 준수 ▲조리시설 등 위생관리 ▲정서제 식품 판매 여부 등이며 위생 상태가 불량한 제품은 수거해 검사한다.

임진석 건강위생과장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강 기자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사·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정겨움이 느껴지는 숲속장터

담양시장

담양지역 상업의 시발점인 담양시장은 그 역사가 신라시대 때부터라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 유서 깊은 시장입니다. 또한 천연기념물 제 366호인 관방제림의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200여년 이상 된 나무들과 함께 숨쉬고 있는 숲속장터이며, 시장점포 위쪽 제방위와 하천변엔 200여분 이상의 노점상인들이 위치하여 정겨운 전통시장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 장이 서는 날 ◎ 매달 2일, 7일로 끝나는 날

담양군내시장

대전시장 장날 : 매달 3일, 8일

청죽시장 장날 : 상시영업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담양군** 문의 : 062)650-2099